

《花東》周祭卜辭 研究

이 민 영*

◁ 목 차 ▷

- I. 緒論
 - II. 周祭卜辭에 대한 선행 연구
 - III. 《花東》周祭卜辭의 내용 및 특징
 - IV. 《花東》子の 신분
 - V. 結論
-

I. 緒論¹⁾

周祭卜辭란 殷墟卜辭에서 조상들에게 주기적으로 거행했던 특정 제사에 관한 기록을 가리킨다. 알려진 바와 같이 殷代에는 제사가 매우 빈번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록들이 卜辭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卜辭의 내용에는 약 200 종류 이상의 제사가 존재했으며²⁾, 누구에게 제사를 거행할 것인지,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지, 제물은 어떤 것으로 얼마나 할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점을 통해 결정되어졌다. 대부분의 제사가 비정기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의해 거행되었다면, 周祭는 주기적으로 행해진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주기적이라 함은 조상명의 天干에 해당되는 날에 왕위의 재위 순서대로 제사가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殷墟卜辭 중에서 周祭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董作賓이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본 논문에서 말하는 《花東》은 《殷墟花園莊東地甲骨》을 가리킨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2003), 《殷墟花園莊東地甲骨》(全六冊), 昆明, 雲南出版社.

2) 구체적인 내용은 常玉芝(2010), 《商代宗教祭祀》,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20-427쪽 참조.

분류한 5期 중 2期에 해당하는 出組卜辭이다.³⁾ 出組 周祭卜辭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上甲에서부터 2期에 해당하는 두 왕 祖庚, 祖甲 중 先王이었던 祖庚까지의 제사 기록을 담고 있다.⁴⁾ 이처럼 2期에 비교적 체계적인 周祭卜辭가 출현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3期和 4期の 卜辭에는 周祭의 체계를 확인시켜 줄만한 卜辭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 시기인 5期 黃組에 이르러서야 보다 체계화되고 문형 또한 정비된 형태의 周祭卜辭가 등장한다. 이로 볼 때 비록 3, 4期에는 周祭卜辭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렵지만 2期에 출현한 周祭 형식이 5期에 이르는 동안 상당히 완비되고 체계화되어 고정된 틀로 완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王卜辭에서 이루어진 周祭卜辭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非王卜辭에서 보이는 周祭卜辭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알려진 非王卜辭로는 1期로 분류되는 子組, 午組 등이 있으나⁵⁾, 이들 非王卜辭의 경우 周祭를 논할 만한 체계적인 기록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非王卜辭로 분류되는 《花東》을 연구 대상으로 周祭卜辭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非王卜辭라는,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王卜辭와 비교되는 《花東》 周祭만의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해 《花東》의 주인인 子의 신분에 대해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董作賓은 殷墟甲骨卜辭의 시기를 1期부터 5期로 분류하였다. 董作賓(1933), 《甲骨斷代研究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五十), 民22 참조. 같은 내용이 《董作賓先生全集甲編》에도 수록되어 있다. 董作賓(1978), 《董作賓先生全集甲編》, 台北, 藝文印書館, 民67, 363-464쪽.

4) 上甲은 卜辭에 보이는 이름으로 문헌에서는 微라 기록되어 있다.

5) 子組, 午組 등 기존의 非王卜辭는 《甲骨文合集》 1期の 마지막 권에 수록되어 있다(이하 《合》이라 약칭한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82), 《甲骨文合集》(全十三冊, 北京, 中華書局) 第七冊 참조.

II. 周祭卜辭에 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非王卜辭의 周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없었지만, 王卜辭 그 중에서도 2期 出組와 5期 黃組의 周祭에 대해서는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 먼저 周祭에 대하여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董作賓이다. 董作賓은 《殷曆譜》에서 처음으로 다섯 종류의 제사가 순서대로 돌아가며 조상들에게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五祀統’이라命名하였다.⁶⁾ 이는 《史記·殷本紀》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殷王의 재위 순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甲骨卜辭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헌의 기록을 실물 기록을 통해 고증해 낸 매우 가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董作賓의 발견은 1950년대에 들어와 일본학자인 島邦男에 의해 보완되었고⁷⁾, 陳夢家 또한 《殷墟卜辭綜述》에서 董作賓의 의견을 보충하는 한편 周祭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⁸⁾ 1968년 許進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祀譜, 즉 각 조상에 대한 제사 순서와 제사 날짜를 도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王卜辭에서의 周祭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다.⁹⁾

이후 周祭卜辭에 대한 연구는 정체를 겪다가 常玉芝에 의해 좀 더 정비되게 된다. 常玉芝는 1987년 《商代周祭制度》에서 5期 黃組의 周祭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한편,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자료를 보충하여 보다 체계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¹⁰⁾, 이는 1945년 董作賓이후 지속되었던 그 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非王卜辭에 대한 성과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는 非王卜辭인 《花東》의 周祭를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6) 董作賓(1945), 《殷曆譜》(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 民34. 같은 내용이 《董作賓先生全集乙編》에도 수록되어 있다. 董作賓(1978), 《董作賓先生全集乙編》(第一冊~第二冊), 台北, 藝文印書館, 民67.

7) 島邦男(2006), 《殷墟卜辭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8) 陳夢家(1988),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367-400쪽.

9) 許進雄의 연구 성과로는 《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台北, 精華印書館, 民57), 《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的新觀念》(《中國文字》第35期, 民59, 1-13쪽), 《第五期五種祭祀祀譜的復原—兼談晚商的歷法》(《古文字研究》第18輯, 北京, 中華書局, 1992, 220-272쪽) 등이 있다.

10) 常玉芝(1987),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것이며, 또한 王卜辭와의 비교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Ⅲ. 《花東》周祭卜辭의 내용 및 특징¹¹⁾

본 장에서는 王卜辭에서 周祭로 거행되고 있는 제사명을 기준으로 《花東》에서도 보이고 있는 제사명을 제시할 것이며,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王卜辭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1. 《花東》周祭卜辭의 내용¹²⁾

王卜辭에 보이고 있는 周祭의 종류는 모두 다섯 가지로 ‘翌(日)’, ‘祭’, ‘賓’, ‘翬(日)’, ‘丕(日)’이 있는데, 《花東》의 경우 ‘翌(日)’, ‘祭’, ‘丕(日)’의 제사명만 보이고 있다.

1) 翌(日)

翌은 王卜辭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로 점친 날에서 ‘10일 이내’를 뜻하는 시간사 용법과 周祭의 하나인 제사명으로 쓰이고 있다. 《花東》에서도 王卜辭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간사로 쓰일 경우 ‘翌日’(*《花東》* 223), ‘翌日+天干’(*《花東》* 53, *《花東》* 124), ‘翌日+干支’(*《花東》* 316), ‘翌+天干’(*《花東》* 14, *《花東》*

11) 《花東》卜辭의 끊어 읽기는 姚萱(2006)의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初步研究》(北京, 線裝書局) 附錄一의 釋文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본문에 제시된 卜辭의 釋文은 讀者의 이해를 돕기 위해 楷書로 처리하며, 가급적 卜辭에서 의미하는 글자로 나타내기로 한다. 즉 ‘宀’의 경우 ‘宀’이라 隸定하지 않고 ‘賓’이라 楷書 처리하며, ‘各’과 ‘亡’은 卜辭에서 각각 ‘格’과 ‘無’로 읽히므로 ‘格’과 ‘無’로 쓰기로 한다. 원 글자와 卜辭에서 읽히는 글자를 각각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各(愍)’과 같이 卜辭에서 읽히려는 글자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하기로 한다. 그밖에 楷書 처리가 어려운 글자는 자형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偏旁을 근거로 隸定하기로 한다.

12) 卜辭에 대한 해석은 본 절 《花東》周祭卜辭의 내용’에서만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뒤에서 다룰 내용들이 주로 기록 형식에 관한 논의이거나, 본 절에서 다룬 예들이 중복 제시되기 때문이다. 뒤의 卜辭 중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03, 《花東》108, 《花東》181, 《花東》416) 등의 형태로 보이고 있다. ‘翌日’ 단독으로 쓰인 경우 뒤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날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뒤에 天干이나 干支가 기록된 예들의 경우 대부분 점친 다음 날을 가리키고 있다.¹³⁾

제사명으로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甲午卜：其禦宜辰，乙未辰_翌彫大乙。用。一 《花東》290
(甲午일에 점친다. “해질 무렵에 禦宜를 하고, 乙未일 해질 무렵 大乙께 翌과 彫을 행할까요?” 채택되다.)
- (2) 甲辰：宜丁牝一，丁格，辰于我，_翌(日)于大甲。用。一二 《花東》34, 《花東》420, 《花東》335
(甲辰일이다. “암소 한 마리로 宜丁을 행하면 丁(왕)께서 해질 무렵 오셔서 (格) 大甲께 翌日을 행하실까요?” 채택되다.)¹⁴⁾
- (3) 甲辰卜：丁格，辰于我，_翌(日)于大甲。一 《花東》169
(甲辰일에 점친다. “丁께서 해질 무렵 오셔서 大甲께 翌日을 행하실까요?”)
- (4) 甲辰夕：歲祖乙黑牡一，子祝，_翌日_咎。¹⁵⁾一 《花東》350
(甲辰일 밤이다. “祖乙께 검은 수소 한 마리로 歲하면서 子가 祝을 하고 翌日을 행할 때 _咎할까요?”)
- (5) 甲辰夕：歲祖乙黑牡一，惠子祝，若，祖乙侃。用。_翌日_咎。一《花東》6
(甲辰일 밤이다. “祖乙께 검은 수소 한 마리로 歲를 하면서 子가 祝을 하면 순조롭고, 祖乙께서 기뻐하실까요?” 채택되다. 翌日을 행할 때 _咎하다.)
- (6) 乙巳：歲妣庚豕，_咎祖乙_翌。一二三 《花東》274
(乙巳일이다. “妣庚께 암돼지로 歲를 하고, 祖乙께 翌을 행할 때 _咎할까요?”)
- (7) 己酉夕：_翌日_咎妣庚黑牡一。一二三四五 《花東》150

13) 드물지만 翌이 며칠 후를 가리키는 예도 있다. ‘庚戌卜：[雨]禦宜，翌壬子_彫，若。用.’(《花東》149).

14) 丁의 考釋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나 당시의 왕인 武丁을 가리킨다는 데는 異見이 없다.

15) 于省吾는 甲骨文에 보이는 _咎을 ‘砣’으로 읽고, ‘제물의 사지를 찢어 잡는 행위를 나타내는 ‘磔’자로 쓰였다고 보았다(就割裂祭牲的肢體言之). 필자 또한 예문의 _咎을 제물을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보았으며, 함께 보이는 歲 역시 제물을 잡는 방법으로 보고 해석을 제시하였다. 卜辭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제사의 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于省吾(1970),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67-172쪽 참조.

- (己酉일 밤이다. “翌日을 행할 때 妣庚께 검은 수소 한 마리로 絜할까요?”)
- (8) 己酉夕: 翌日絜歲妣庚黑牡一, 庚戌彫北一. 一三四 《花東》 457
(己酉일 밤이다. “翌日을 행할 때 妣庚께 검은 수소 한 마리로 絜과 歲하고, 庚戌일에는 암소 한 마리로 彫을 할까요?”)
- (9) 己卜: 其子興妣庚. 一
(己일에 점치다. “자가 妣庚께 興을 행할까요?”)
夕: 歲小宰絜妣庚. 一 《花東》 39
(밤이다. “우리에서 키운 작은 양으로 歲하여 妣庚에게 絜을 행할까요?”)
- (10) 丙申卜: [丁]絜. 子占曰: 其賓. 孚. 《花東》 173
(丙申일에 점치다. “丁께서.....絜.....”자가 판단하여 말한다: “賓을 할 것이다.” 실현되다.)

시간사 용법으로 쓰인 것과 동일하게 ‘翌日’ 또는 ‘絜’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絜은 모두 12片的 甲骨片에서 보이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해서 점친 예들로, 실제로는 4건의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남성 조상인 大乙, 大甲, 祖乙에 대한 제사와 여성 조상인 妣庚에 대한 제사이다.¹⁶⁾

(1)은 乙未일에 大乙에게 絜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¹⁷⁾, (2)와 (3)은 甲辰일에 大甲에게 絜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4), (5)와 앞의 (2), (3)은 점친 날이 甲辰으로 같지만, 제사의 대상은 다르다. (4)는 甲辰일 밤(夕)에 祖乙에게 歲를 거행하면서 자가 祝을 하고, 翌(日)과 絜을 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 묻고 있다. (5)는 (4)와 같은 내용이지만 (5)에서 命辭에 쓰였던 ‘翌日絜’이 用辭인 用 뒤에 驗辭로 기록되었다. 즉, 甲辰일 밤에 絜과 絜을 행하였다는 뜻이다. 翌(日)은 본래 제사를 드리는 조상신과 같은 天干의 날에 행해지지만, 王卜辭에서도 제사가 진행될 전날 밤에 미리 시작되는 예가 자주 보이고 있다.¹⁸⁾ 따라

16) 大乙과 大甲은 王卜辭에서도 출현하는 선왕의 이름으로 학자들 사이에 異見이 없으나, 祖乙과 妣庚, 뒤에 나올 祖甲에 대해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17) 大乙은 殷의 제1대 왕인 成湯을 가리키며, 王卜辭에서는 大乙 외에도 唐이라 쓴다.

18) 魏慈德은 王卜辭에서 周祭가 진행되어야 할 날이 아닌 전날 밤(夕)에 드려지는 제사는 모두 다음 날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魏慈德(2006),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 台北, 台灣古籍出版有限公司, 59-60쪽 참조.

서 (4), (5)의 祖乙에게 絜을 거행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乙巳일에 지낼 제사로, 甲辰일 밤에 시작하여 乙巳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6)의 乙巳일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과 (8)에 보이는 絜日의 경우 시간사의 용법인지 제사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시간사로 볼 경우 점친 날인 己酉일의 다음 날에 妣庚에게 검은 수소(黑牡) 한 마리를 ‘絜歲’의 방법으로 제사 드리고, 庚戌일에 암소(牝) 한 마리를 제물로 絜을 드리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己를 天干으로 하는 날에 점친 (9)를 보면, 밤(夕)에 짐을 치면서 우리에서 기른 작은 양(小宰)을 제물로 妣庚에게 絜제를 드릴 것을 묻고 있어, (7), (8)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絜(日)이 시간사로 쓰였다면 점친 다음 날인 庚戌일을 가리키게 되므로, ‘絜歲妣庚黑牡一’ 뒤에 기록한 ‘絜牝一’의 경우 앞에 庚戌이라는 날짜를 쓸 이유가 없다. 《花東》의 다른 卜辭 뿐만 아니라 王卜辭에서도 같은 날에 제사가 진행될 경우 干支를 따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絜日’은 시간사가 아닌 제사명으로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己酉일 밤에 시작될 絜제에 관하여 점쳐 묻고, 다음 날에 진행할 絜에 대해서는 따로 庚戌이라는 시간을 기록하여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유사한 형식에서 絜이 시간사로 쓰인 예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보다 명확해진다.

(11) 乙卜：于絜[絜]妣庚. 用. 二 《花東》 401

(乙일에 점치다. “다음 날에 妣庚께 絜을 할까요?” 채택되다.)

乙卜：惠今絜妣庚. 二

(乙일에 점치다. “오늘 妣庚께 絜을 할까요?”)

(12) 己巳卜：絜庚歲妣庚黑牛又羊, 暮絜. 用. 一二三四五 《花東》 451

(己巳일에 점치다. “다음 날인 庚일에 妣庚께 검은 소와 양으로 歲하면서, 저녁에 絜을 할까요?” 채택되다.)

(11)은 ‘于絜[絜]妣庚’으로 쓰여 ‘絜’이 마치 제사명으로 쓰인 듯하나, 아래의 ‘惠今絜妣庚’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今’에 대응하는 시간사로 쓰였다. (12)의 경우에는 ‘絜’ 뒤에 庚이 쓰여 역시 시간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花東》에서는 絜이 시간사로 쓰일 경우 주로 ‘絜’의 자형을 사용하며 대부분 ‘天干(干支)’이 함

께 기록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7),(8)의 翌日은 제사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 외에도 아래의 두 卜辭에서 翌이 보이고 있다.

- (13) 甲卜：呼多臣見(獻)翌丁. 用. 一 《花東》 92
(甲일에 점치다.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翌을 丁께 바치게 할까요?” 채택되다.)
- (14) 甲卜：呼多臣見(獻)翌于丁. 用. 二 《花東》 453
(甲일에 점치다.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翌을 丁께 바치게 할까요?” 채택되다.)

문형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일에 대해 점친 기록이다. 여기서의 ‘翌’은 ‘見(獻)’의 목적어로 쓰여 시간사로 볼 수 없다. 또한 ‘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문형이나 내용으로 볼 때 살아있는 왕(丁)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¹⁹⁾ 따라서 위의 예들은 周祭의 기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2) 祭²⁰⁾

祭는 《花東》에서 총 7片的 甲骨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西祭’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 (15) 甲寅：歲祖甲白豨一，**祝**鬯一，**鬯**(登?)自**西祭**. 一 《花東》 170
(甲寅일이다. “祖甲께 흰 수탉지 한 마리로 歲하면서 鬯 하나로 **祝**를 하고, 西祭에서 온 것으로 **鬯**을 할까요?”)
- (16) 甲寅：歲祖甲白豨一，**祝**鬯一，**鬯**(登?)自**西祭**. 一
(甲寅일이다. “祖甲께 흰 수탉지 한 마리로 歲하면서 鬯 하나로 **祝**를 하고, 西祭에서 온 것으로 **鬯**을 할까요?”)
- 乙卯：歲祖乙白豨一，**鬯**(登?)自**西祭**，祖甲延. 二 《花

19) 姚萱(2006:257)은 예문에 보이는 翌은 翌제를 드릴 때 사용한 제물(짐승의 고기)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20) 필자는 《花東》에서의 祭는 周祭로 거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여기서는 王卜辭에서 보이는 周祭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周祭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IV. 《花東》 子の 신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東》4

(乙卯일이다. “祖乙께 흰 수탉지 한 마리로 歲하면서 西祭에서 온 것으로 雝을 하고, 祖甲께도 이어서 행할까요?”)

- (17) 戊寅卜: 歲祖甲小宰, 祖乙小宰, 登自西祭, 子祝. 一二 《花東》214
(戊寅일에 점치다. “祖甲께 우리에서 기른 작은 양을 쓰고, 祖乙께도 우리에서 기른 작은 양을 써 歲하면서, 西祭에서 온 것으로 登을 하고 자가 祝할까요?”)
- (18) 丙午卜: 其入自西祭若, 于妣己酉(彤). 用. 一二 《花東》355
(丙午일에 점치다. “西祭에서 들어오는 것이 순조로우면 妣己께 酉(彤)을 할까요?” 채택되다.)
- (19) 辛未: 歲妣庚小宰告, 又肇鬯, 子祝, 尙(登?)祭. 一二三四 《花東》265
(辛未일이다. “妣庚께 우리에서 기른 작은 양으로 歲하여 告하고, 또 鬯을 바치고 자가 祝하며 尙祭할까요?”)

(15)에서 (17)에 보이는 내용은 祖甲이나 祖乙에게 歲를 행하면서 각각의 제물 외에도 ‘西祭’에서 쓰였던 제물로 ‘雝’을 올리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18)의 내용도 ‘入自西祭’로 보아 ‘西祭’에서 사용된 제물을 들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며, (19)의 ‘尙祭’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尙自西祭’의 문형이 자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祭를 거행하면서 사용한 제물로 雝을 올리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 보이는 祭는 모두 祖甲, 祖乙, 妣庚의 조상들에게 직접 거행한 제사로 보기 어렵다.

祭가 독립된 제사명으로 쓰인 것으로는 다음의 두 예가 있다.

- (20) 甲辰卜: 又(早)²¹祭祖甲, 惠子祝. 一
(甲辰일에 점치다. “아침에 祖甲께 祭를 행할 때 자가 祝할까요?”)
甲辰: 又(早)祭祖甲友牝一. 一
(甲辰일이다. “아침에 祖甲께 友의 암양 한 마리로 祭를 행할까요?”)
甲辰: 又(早)祭祖甲友牝一. 二
(甲辰일이다. “아침에 祖甲께 友의 암양 한 마리로 祭를 행할까요?”)
乙巳: 又(早)祭祖乙友牝一. 一
(乙巳일이다. “아침에 祖乙께 友의 암양 한 마리로 祭를 행할까요?”)

21) 又의 考釋은 黃天樹(2006), 〈殷墟甲骨文白天時稱補說〉, 《黃天樹古文字論集》(北京, 學苑出版社), 228쪽 참조.

庚戌: 又(早)祭妣庚友白豕一. 一 《花東》 267
(庚戌일이다. “아침에 妣庚께 友의 흰 암돼지 한 마리로 祭를 행할까요?”)

(21) 祖甲白豕一, 祖乙白豕一, 妣庚白豕一. 二
(“.....祖甲께 흰 수돼지 한 마리를, 祖乙께 흰 수돼지 한 마리를, 妣庚께 흰 수돼지 한 마리를.....?”)

乙卜: 又(早)祭祖乙. 22) 《花東》 309
(乙일에 점치다. “.....아침에 祖乙께.....祭를 행할까요?”)

(21)은 훼손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20)을 보면 甲辰일을 시작으로 10일(旬) 안에 각각 祖甲, 祖乙, 妣庚의 순으로 祭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彡(日)

彡은 모두 11片的 甲骨片에서 발견되고 있다.

(22) 甲午卜: 子速, 不其格. 子占曰: 不其格, 呼鄉. 用. 彡祖甲彡. 一二
(甲午일에 점치다. “자가 초대하면 오시지 않을까요?” 자가 판단하여 말하다. “오시지 않고 鄉을 명할 것이다.” 채택되다. 祖甲께 彡을 행할 때 彡하다.)

甲午卜: 丁其格, 子惠 彡 彡肇丁. 不用. 彡祖甲彡. 三 《花東》 288
(甲午일에 점치다. “丁께서 오시면 자가 彡 彡을 丁께 바칠까요?” 채택되지 않다. 祖甲께 彡을 행할 때 彡하다.)

(23) 癸酉卜, 在 彡: 丁弗賓 祖乙彡. 子占曰: 弗其賓. 用. 一二 《花東》 480
(癸酉일에 彡에서 점치다. “丁께서 祖乙께 彡을 賓하지 않으실까요?” 자가 판단하여 말하다. “賓하지 않으실 것이다.” 채택되다.)

(24) 甲戌夕: 歲牝一 祖乙, 彡彡 一 二 三 《花東》 310
(甲戌일 밤이다. “祖乙께 암소 한 마리를 歲하고, 彡을 행할 때 彡.....?”)

(25) 乙亥卜: 彡祖乙彡牢, 一牝, 子無肇丁. 一
乙亥卜: 彡祖乙彡牢, 一牝, 子無肇丁. 二 《花東》 275
(乙亥일에 점치다. “祖乙께 彡을 행할 때 우리에서 기른 소와 암소 한 마리를 彡하고, 丁께 바치지 말까요?”)

22) 卜辭의 내용 중 ‘又’에 대해 姚萱(2006:326)은 ‘又’로 보았으나, 拓本の 자형은 彡로 쓰여 彡(又)와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필자는 ‘又(早)’로 판단하였다.

- (26) 乙亥: 歲祖乙, □禦, 𠄎₁牢牝一. 一 《花東》449
 (乙亥일이다. “祖乙께 歲하고, □禦하며, 𠄎을 행할 때 우리에서 기른 소와 암소 한 마리를 𠄎할까요?”)
- (27) 丁巳: 歲祖乙牝一, 𠄎祖丁₁. 一 《花東》237
 (丁巳일이다. “祖乙께 수양 한 마리로 歲하고, 祖丁께 𠄎을 행할 때 𠄎할까요?”)
- (28) 丁巳: 歲祖乙牝一, 𠄎祖丁₁. 三
 (丁巳일이다. “祖乙께 수양 한 마리로 歲하고, 祖丁께 𠄎을 행할 때 𠄎할까요?”)
 庚辰卜: 𠄎₁妣庚, 用牢又牝, 妣庚侃. 用. 一 《花東》226
 (庚辰일에 점치다. “妣庚께 𠄎을 행할 때 우리에서 기른 소와 암소를 제물로 𠄎하면, 妣庚께서 기뻐하실까요?” 채택되다.)
- (29) 己卯卜: 庚辰𠄎₁妣庚, 先改牢, 後改牝一. 用. 一二三
 (己卯일에 점치다. “庚辰일에 妣庚께 𠄎을 행할 때 𠄎하면서, 먼저 우리에서 기른 소를 改하고, 그 뒤에 암소 한 마리를 改할까요?” 채택되다.)
 庚辰: 歲妣庚牢、牝, 𠄎₁. 一 《花東》427
 (庚辰일이다. “妣庚께 우리에서 기른 소와 암소로 歲하고, 𠄎을 행할 때 𠄎할까요?”)
- (30) 庚辰: 歲妣庚牢, 𠄎₁牝, 後改, 一二 《花東》490
 (庚辰일이다. “妣庚께 우리에서 기른 소로 歲하면서 𠄎을 행할 때 암소로 𠄎하고 그 뒤에 改할까요?”)
- (31) 庚辰卜: 于[既]□宰, 改牝一, 𠄎₁妣庚. 用. 𠄎₁𠄎. —23) 《花東》428
 (庚辰일에 점치다. “우리에서 기른 양으로 끝난 후 암소 한 마리로 改하고 妣庚께 𠄎할까요?” 채택되다. 𠄎하면서 𠄎하다.)

제사 대상으로 祖甲, 祖乙, 妣庚 외에도 祖丁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𠄎이 출현하는 卜辭들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점친 기록들이 많은데, (23)에서 (26)까지는 모두 祖乙에게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24)는 甲戌일 밤(夕)부터 (25), (26)과 같은 干支인 乙亥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27)과 (28)은 모두 丁巳일에 祖丁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 점친 기록이다. (29)부터 (31)까지는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모두 庚辰일에 妣庚에게 𠄎제

23) ‘于既’에 대해 黃天樹는 어떤 일이 ‘끝난 후’를 뜻한다고 보았다. 黃天樹(2006), 〈殷墟花園莊東地甲骨中所見虛詞的搭配和對象〉, 《黃天樹古文字論集》(北京, 學苑出版社), 404쪽 참조.

있으며²⁶⁾, 周祭의 대상으로 大乙, 大甲, 祖丁, 祖甲, 祖乙, 妣庚의 다섯 조상의 이름만이 확인되었다. 《花東》은 武丁이 아직 재위할 시기의 卜辭이므로 武丁을 제외한 조상들에게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翌, 祭, 翌의 해당 卜辭에서 살펴봤듯이 위의 조상명을 제외한 조상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제사 卜辭에서는 上甲(《花東》 338, 《花東》 459, 《花東》 487)과 小甲(《花東》 85)의 이름이 보이고 있어, 실제로는 이들 조상들에게도 周祭가 거행되었지만 현재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²⁷⁾

그렇다면 《花東》에서 周祭를 드릴 때 조상들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王 卜辭의 경우 불특정하게 진행되는 제사가 아니라면, 보통 제사 대상의 天干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周祭에 해당되는 제사는 天干이 아닌 왕위에 오른 순서에 따라 제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花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다룬 大乙과 大甲에게 거행한 翌제의 경우 일반 제사와 같이 天干의 순서에 따라 제사를 드린다면, 大甲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 大乙에게 제사 드려야 옳다. 그러나 (1)의 乙未일에 大乙에게 翌제를 드리고 그 다음 旬인 (2)의 甲辰일에 大甲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王 卜辭에서 大乙에게 제사를 드린 그 다음 旬에 大甲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순서이다. 이외에도 翌제의 경우 (27), (28)의 丁巳일에 祖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로부터 두 번째 旬인 (25)乙亥일에 祖乙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天干의 순서대로 하자면 祖乙과 祖丁에게 같은 旬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祖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이는 祖丁이 祖乙보다 재위 순서가 앞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²⁸⁾

26) 工典은 다섯 종류의 제사가 각각 시작되기 바로 전 旬의 甲일에 거행된 제사의 이름이다. 常玉芝(1987)에 의하면 周祭는 ‘翌(日)→祭→翌(日)→翌(日)’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제사는 工典이 거행된 다음 旬에 上甲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27) 《花東》에서 翌, 祭, 翌 세 제사의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제사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28) 大乙과 大甲에게 드리는 翌제의 경우 제사가 드러지는 干支가 서로 이어지는 날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祖丁과 祖乙에게 드러진 翌제의 경우는 시간의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 IV. 《花東》 子의 신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남성 조상의 배우자인 妣에게는 언제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王卜辭에서 선대의 왕비에 대한 周祭는 선왕과 같은 旬에 드리는 규칙을 보이고 있다.《花東》의 경우 周祭의 대상이 되는 여성 조상은 妣庚 한 명만이 보이고 있는데, 乙亥일에 祖乙에게 丕제를 드린 후 같은 旬인 庚辰일에 妣庚에게도 丕제를 드리고 있다. 祖乙과 妣庚은 《花東》의 여러 卜辭에서 이미 함께 출현하고 있어 부부 관계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처럼 선왕과 선왕의 왕비에 대해 같은 旬에 周祭를 드린다는 규칙성이 《花東》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周祭의 기록 형식

出組에서의 周祭의 기록 형식은 남성 조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²⁹⁾ 첫째, 향후 10일(旬) 동안 무탈할 지 묻는 卜旬卜辭의 뒤에 해당 旬 안에 진행될 周祭의 내용을 기록하거나³⁰⁾, 둘째, 周祭가 거행되기 전날, 다음 날 있을 제사가 순조로울 지를 묻는 유형이 있으며³¹⁾, 셋째, 周祭 당일, 王이 직접 제사를 거행하는 형식으로 역시 해당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조로울 지를 묻는 유형이 있다.³²⁾

- (38) 癸丑卜, 王貞: 旬無憂. 在四月, 甲寅彫翌自上甲. 《合》22669
 (39) 癸亥卜, 尹貞: 旬無憂. 在十二月, 乙丑翌小乙, 丁卯翌父丁. 《合》23244
 (40) 甲申卜, 卽貞: 翌乙酉翌于小乙, 無害. 五月.
 [丙]戌卜, 卽貞: 翌[丁]亥翌[于]父丁, 無害. 《合》23126正
 (41) 乙亥卜, 行貞: 王賓祖乙翌, 無吝(愆). 《合》22898

두 번째 유형에서 翌제가 진행될 경우, (40)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사 翌도 함께 쓰이며, 시간사로 쓰일 경우에는 대부분 翌(翌)을 사용하고, 제사명으로 쓰일 경우

29) 常玉芝(1987:34) 참조.

30) 이 때 점을 치는 날은 癸로 시작된다. 卜旬卜辭의 끝에 기록되는 周祭의 형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上甲부터 제사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干支卜, 卽貞: 旬無憂. (在某月)干支+제사명+自上甲’의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干支卜, 卽貞: 旬無憂. (在某月)干支+제사명+제사대상’의 형식이다.

31) 보통 ‘干支卜, 卽貞: 翌干支+제사명+(于)제사대상+無害’를 기본 형식으로 한다.

32) ‘干支卜, 卽貞: 王賓+제사대상+제사명+無吝(愆)’을 기본 형식으로 한다.

에는 𠄎(𠄎)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³³⁾

이에 반해, 《花東》은 체계화시킬 만한 형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 조상에게 周祭 외에 다른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같이 기록되거나(甲辰夕: 歲祖乙黑牡一, 子祝, 翌日舌. 一; 《花東》 350), 다른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도 함께 보이고 있어(丁巳: 歲祖乙牲一, 舌祖丁彡. 三; 《花東》 226), 특정한 형식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조상에 대해 드러진 周祭는 出組의 경우 ‘王賓’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유형에서만 보이고 있는데, ‘(남성)조상명+爽+(여성)조상명+제사명’의 형식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는 여성 조상이 누구의 배우자인지 나타내고 있다.³⁴⁾

(42) 己丑卜, 尹貞: 王賓祖丁爽妣己𠄎, 無吝(愆).

庚戌卜, 尹貞: 王賓小乙爽妣庚𠄎, 無吝(愆).

《合》 23330

반면 《花東》에서는 여성 조상의 이름을 단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庚辰: 歲妣庚牢、牝, 舌彡. 一; 《花東》 427), 周祭 이외의 다른 제사 내용도 함께 기록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常玉芝(1987:23-24)는 出組의 周祭가 黃組에 비해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出組를 周祭制度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보았는데, 《花東》은 내용과 형식 모두 出組보다도 더 틀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성 조상의 재위 순서에 따라 周祭를 진행한다는 점과 여성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남성 조상과 같은 旬에 거행된다는 점은 이미 확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이 결정된 상황에서 周祭의 기록 형식이나 진행 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은, 《花東》이 出組보다 이른 시기의 卜辭이면서, 동시에 王卜辭에 비해 체계가 잡히지 않은 非王卜辭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3) 《花東》의 경우 자형의 구분 없이 시간사와 제사명에 두 자형을 혼용하는데, 시간사로 는 𠄎(𠄎)이 翌(翌)보다 더 자주 보이고 있으며, 제사명은 𠄎(𠄎)보다는 翌(翌)日의 형태로 쓰이는 예가 더 많다.

34) 常玉芝(1987:86-105) 참조.

IV. 《花東》 子の 신분

《花東》이 발굴되기 이전, 非王卜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非王卜辭, 그중에서도 子組의 주인인 子の 신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왔다. 귀족 중심의 다른 卜辭와는 달리 子組卜辭에는 같은 시기의 王卜辭에서 보이는 조상명이 제사대상으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³⁵⁾ 때문에 彭裕商(1986)은 子組의 子는 殷王과 같은 姓을 가진 族長으로 武丁의 兄弟이거나 적어도 ‘從兄弟’(사촌) 관계일 것으로 보았다.³⁶⁾ 기존의 子組卜辭와 마찬가지로 《花東》에서도 大乙, 大甲 등 殷의 선대 왕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왕들에 대해 周祭를 드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花東》의 子 또한 武丁과 혈연관계를 지닌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외에도 《花東》에서 子가 武丁, 婦好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고, 서로의 안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도 子와 王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花東》의 주인인 子の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武丁과는 어떤 관계를 지녔는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고, 특히 《花東》에 보이는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 子の 신분을 보다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주장 중 큰 반향을 일으킨 의견으로는 ‘沃甲의 후손’이라는 설과 ‘武丁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다.³⁷⁾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타당성을 살펴보고, 《花東》 周祭卜辭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5) 黃天樹(2006), 〈子組卜辭研究〉; 《黃天樹古文字論集》(北京, 學苑出版社), 82-98쪽 참조.

36) 彭裕商(1986), 〈非王卜辭研究〉; 《古文字研究》第13輯(北京, 中華書局), 68쪽.

37) 《花東》 子の 신분에 대한 의견으로는 ‘沃甲(羌甲)의 후손’, ‘武丁의 비교적 먼 친족’, ‘武丁의 아들 孝己’, ‘武丁의 아들 子欸’, ‘武丁과 혈연관계는 있으나 羌甲이나 武丁의 후예는 아님’, ‘武丁시기의 귀족’ 등이 있다. 관련 내용은 韓江蘇(2008), 〈殷墟H3卜辭主人“子”爲太子再論證〉; 《古代文明》第2卷第1期, 17-33쪽 참조. 이외에 子를 武丁시기의 大臣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沈建華(2007), 〈從花園莊東地卜辭看“子”的身份〉; 《中國歷史文物》2007年第1期, 50-55쪽.

1. 子에 관한 기존의 의견

1) ‘沃甲(羌甲)의 후손’ 說

沃甲은 문헌에 보이는 이름으로 王卜辭에서는 羌甲이라 기록되어 있다. 劉一曼과 曹定雲(1999)은 《花東》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祖乙과 祖甲은 각각 王卜辭의 祖乙과 羌甲을 가리키며, 子는 바로 羌甲의 후손이라 주장하였다.³⁸⁾ 그러나 祖甲에게 드리는 제사가 祖乙보다 하루 먼저 거행되는 기록이 빈번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두 조상에게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역시 祖甲과 祖乙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祖甲은 羌甲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³⁹⁾ 이는 王卜辭의 周祭에서 祖乙이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羌甲이 등장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43) 甲戌: 𠄎上甲, 旬歲祖甲𠄎一, 歲祖乙𠄎一, 歲妣庚𠄎一. 一二三四五六
《花東》 56

(44) 丁未卜: 其禦自祖甲、祖乙至妣庚, 𠄎二牢, 來自皮鼎𠄎興. 用. 一
《花東》 149

특히 (44)의 경우 祖甲에서부터 祖乙, 妣庚에 이르기까지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 祖甲이 祖乙보다 앞서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祖乙을 祖甲의 아버지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曹定雲(2009)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劉源과 楊陞南은 (王卜辭의) ‘周祭’의 순서에 따라 H3 卜辭에서 제사가 드러지는 순서를 검토한 것으로, 사실 殷代의 ‘周祭’는 祖庚, 祖甲 시기에 시작되어 帝乙, 帝辛 시기에 완비된 것이다. H3 卜辭는 殷代의 초기 卜辭로 이 시기에는 아직 ‘周祭’가 없었기에 (王卜辭의) ‘周祭’의 순서에 따라 (《花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H3 卜辭의 제사 순서(祖甲은 甲일, 祖乙은 乙일)는 조상의 干支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후대의 ‘周祭’ 순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他們是按照“周祭”次序來檢查H3卜辭中的致祭次序的。事實上, 殷代“周祭”是在祖庚、祖甲

38) 劉一曼 曹定雲(1999)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選釋與初步研究〉, 《考古學報》1999年 第3期, 300쪽.

39) 劉一曼과 曹定雲(1999)에 대한 학자들의 반론은 姚萱(2006:41-45) 참조.

開始, 到乙辛時代才完善的。H3卜辭是殷代早期卜辭, 此時尚無“周際”, 是不能按“周祭”來要求的。實際上, H3卜辭中的致祭次序(祖甲在甲日、祖乙在乙日), 是由先祖日名所在干日決定的, 同後來“周祭”次序毫不相干。)⁴⁰⁾

曹定雲은 《花東》 시기에는 周祭가 없었으며, 조상의 天干일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논리로 祖甲의 제사 순서가 祖乙의 앞에 오는 사실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王卜辭와 같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花東》에도 이미 周祭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사가 드러지는 순서도 天干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재위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의 卜辭를 보도록 하자.

- (45) 丁巳: 歲祖乙牝一, 舌祖丁彡. 三
 庚辰卜: 舌彡妣庚, 用牢又牝, 妣庚侃. 用. 一 《花東》 226
- (46) 丁巳: 歲祖乙牝一, 舌祖丁彡. 一
 辛未卜: 丁惟好令比(伯)或伐邵. 一 《花東》 237
- (47) 辛未卜: 丁[惟]子令比伯或伐邵. 一
 辛未卜: 丁惟多彡臣令比伯或伐邵.
 乙亥卜: 舌祖乙彡牢, 一牝, 子無肇丁. 一
 《花東》 275+《花東》 517⁴¹⁾
- (48) 辛未卜: 伯或毋冊, 惟丁自征邵. 一
 辛未卜: 丁弗其比伯或伐邵. 一
 乙亥: 歲祖乙, □禦, 舌彡牢牝一. 一 《花東》 449

위의 예들은 丁巳일부터 庚辰일까지 24일 동안 점친 기록으로, 武丁이 누구에게 명하여 伯或과 연합해서(比) 邵를 정벌(伐)하게 할 것인지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간 중간에 조상들에게 彡제를 지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丁巳일에 祖丁에게 彡제를 드리고, 다시 18일 뒤인 乙亥일에 祖乙에게 彡를 드린 후 5일 뒤인 庚辰일에 妣庚에게도 彡제를 드림을 알 수 있다. 만약 曹定

40) 曹定雲(2009), 〈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體“子”〉; 《殷都學刊》2009年第1期, 8쪽.

41) 蔣玉斌(2005), 〈花東甲骨新綴一則〉,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網站(先秦史研究室 http://www.xianqin.org/xr_html/articles/jgzhh/299.html). 蔣玉斌(2006), 《殷墟子卜辭的整理與研究》,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博士學位論文, 229쪽.

雲의 의견대로 《花東》에 周祭가 없고 조상의 天干일에 제사가 드러졌다면, 제사는 妣庚, 祖乙, 祖丁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 조상인 妣庚을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祖乙이 먼저 나와야 옳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子이라는 周祭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사 순서도 祖丁이 앞에 나오고 있어 曹定雲의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2) ‘武丁의 아들’ 說

子를 武丁의 아들로 본 의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楊陞南(2004)과 韓江蘇(2008)는 子를 太子였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孝己라고 보았고⁴²⁾, 姚萱(2006:40-55)은 王卜辭에 등장하는 子⁴³⁾라 보았다. 이 의견들은 《花東》의 제사 관련 卜辭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대한 호칭인 父가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子의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전제 하에 卜辭에서 子가 武丁, 婦好와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내려진 결론이다. 또한 祖乙을 武丁의 아버지 小乙로 보고, 다른 조상들인 祖甲, 祖庚, 祖辛에 대해서는 각각 小乙의 형들이면서 先王이었던 陽甲, 般庚, 小辛으로 판단하였으며, 妣庚은 小乙의 왕비인 妣庚으로 보았다. 楊陞南(2004)과 韓江蘇(2008)가 《花東》에 기록된 子의 역할과 활동, 武丁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子를 太子인 孝己로 보았다면, 姚萱(2006)은 제사 卜辭에 등장하는 호칭과 子의 활동을 중심으로 武丁의 아들 子⁴⁴⁾이라 주장하였다.

孝己는 出組에서는 兄己라 불리고 黃組에서는 祖己라 불렸지만, 살아 있을 당시인 武丁시기의 賓組 및 師組 등에서는 小王으로 불리었다. 때문에 常耀華(2006)는 《花東》에 小王이라는 호칭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孝己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만약 武丁과 《花東》의 子가 부자 관계라면 부친인 武丁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아들인 子가 조상들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대의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⁴⁵⁾ 또한 《花東》에 兄丁(《花東》236)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子에게는 丁의 天干을 가진 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出組卜辭 및 문

42) 楊陞南의 의견은 楊陞南(2004), 〈殷墟花東H3卜辭“子”的主人是武丁太子孝己〉; 《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4-210쪽 참조.

43) 常耀華(2006), 《殷墟甲骨非王卜辭研究》, 北京, 線裝書局, 272-276쪽 참조.

헌의 기록에 의하면 武丁에게는 孝己와 祖庚, 祖甲의 세 아들만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子가 孝己라면 出組의 祖庚, 祖甲과 형제라는 뜻이나 《花東》에 보이는 兄 丁이 出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이는 《花東》의 子가 왕실의 일원이며 武丁과 혈연관계를 갖는 것은 맞지만, 武丁의 아들은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외에도 子가 왕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占卜기관이 있고, 여러 대신을 호령할 만한 세력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花東》의 卜辭는 완전한 형태의 龜甲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소의 肩胛骨을 주로 사용한 歷組나 기타 다른 非王卜辭와 비교해 볼 때, 子가 경제적으로나 지위에 있어서 큰 세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花東》에 기록된 문자 중에는 王卜辭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이거나, 심지어 처음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많다는 점도 子가 武丁의 아들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게 한다.

2. 周祭 기록을 통해 본 武丁과 子의 관계

그렇다면 《花東》의 子는 武丁과 어떠한 관계인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바로 周祭卜辭에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花東》의 周祭에는 大乙과 大甲이 출현하며, 祖丁, 祖甲, 祖乙, 妣庚의 조상도 보이고 있다. 다른 제사 卜辭에서는 上甲과 小甲도 보이고 있어, 《花東》의 子가 왕실의 일원이며 武丁과 혈연관계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祖丁, 祖甲, 祖乙, 妣庚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子와 武丁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花東》의 제사 대상에는 유독 친족을 가리키는 호칭인 祖를 사용한 이름이 많이 보이고 있다. 祖는 조상명에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특히 돌아가신 祖父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모두 祖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出組의 경우 여러 조상명을 함께 기록할 때는 天干이 중복되는 조상이 많아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혼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祖나 父, 母, 兄 등과 같은 친족을 의미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49) 貞卜, 行(貞): [王]賓祖乙暨小乙, 無吝(愆). 《合》22908
 (50) 乙卯卜, 行貞: 王賓祖乙戠一牛.
 [丁]巳卜, 行(貞): 王賓父丁戠羌十又八. 《合》22550

(49)의 祖乙과 小乙은 각각 고유명사로 조상명이며, (50)의 祖乙은 出組의 왕들인 祖庚, 祖甲의 할아버지 小乙을 가리키고, 父丁은 아버지 武丁을 가리킨다.

또한 친족 호칭을 사용하여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다른 글자를 첨가하여 구별하였다.

- (51) 貞自祖乙、祖辛、毓(戚)祖乙、父丁, 無吝(愆). 《合》22943

祖乙은 조상명 祖乙이고, 毓祖乙은 할아버지인 小乙이며, 父丁은 아버지 武丁을 가리킨다. 小乙을 친족 호칭을 사용하여 祖乙이라 써서 앞의 조상 祖乙과 구분하기 위해 毓을 덧붙여 기록하였다. 이로 볼 때《花東》에 보이는 祖는 가까운 조상을 가리키는 친족 호칭이며, 다른 조상명과 혼돈의 우려가 없어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⁴⁴⁾ 그렇다면 祖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보자.

- (52) 癸酉卜, 在外: 丁弗賓祖乙彡. 子占曰: 弗其賓. 用. 《花東》480
 (53) 辛丑卜: 禦丁于祖庚至□一, 𠄎羌一人、二牢; 至𠄎一祖辛禦丁, 𠄎羌一人、二牢. 《花東》56

(52)는 癸酉일에 外에서 짐친 기록으로, ‘왕(丁)이 祖乙에게 彡제를 진행(賓)할 것인지를 묻고 있으며, 占辭에서는 子가 ‘(왕께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王卜辭에서 賓은 왕이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을 뜻하며, 왕을 제외한 인물이 이 의식을 거행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花東》에서 왕이 子의 조상인 祖乙에게 賓을 행할지 묻는다는 것은 祖乙이 왕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

44) 姚萱(2006:45-46)은 ‘辛未: 歲祖乙黑牡一, 𠄎一, 子祝. 曰: 毓(戚)祖乙非曰云兕正, 祖惟曰泉𠄎不又醜’《花東》161)에 보이는 毓祖乙은 바로 앞에 나온 祖乙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즉 祖乙이 祖父나 曾祖父임을 뜻한다.

다. 즉 같은 혈통의 조상이기에 왕이 직접 周祭의 하나인 丕제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武丁과 祖乙은 어떤 관계일까? 武丁 시기의 王卜辭에서 乙을 天干으로 가지는 先王은 大乙과 祖乙, 小乙 외에는 없다. 그런데 大乙은 殷의 1대 왕이고 祖乙의 경우 武丁의 高祖父에 해당하므로, 같은 시기인 《花東》의 子 입장에서 둘 다 가까운 조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祖乙은 小乙로 볼 수밖에 없으며, 武丁의 아버지가 子에게는 祖父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53)에서는 왕(丁)에게 닥친 재앙을 제거하기 위해 祖庚과 祖辛에게 禦祭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역시 祖라는 친족 호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武丁의 아버지 항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武丁의 아버지 항렬에는 小乙의 형들인 陽甲과 般庚, 小辛이 있는데, 子의 입장에서 각각 祖甲, 祖庚, 祖辛으로 부를 수 있으며, (53)의 祖庚, 祖辛이 이에 해당된다. 왕인 武丁에게 재앙이 닥쳐 祖父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祖甲은 小乙의 다른 형제인 陽甲이라 판단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형제 관계로 祖丁의 아들들이며 '陽甲→般庚→祖辛→小乙'의 순으로 왕위가 이어졌고, 다시 小乙의 아들인 武丁이 왕위를 이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周祭는 재위 순서에 따라 거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出組에서의 周祭⁴⁵⁾

순서	제사대상
第1旬	上甲 乙 丙 丁 示壬 示癸
第2旬	大乙 大丁
第3旬	大甲 卜丙 大庚
第4旬	小甲 大戊 雍己
第5旬	中丁 卜壬
第6旬	亥甲 祖乙 祖辛
第7旬	羌甲 祖丁 南庚
第8旬	陽甲 般庚 小辛
第9旬	小乙(妣庚) 武丁 祖己 祖庚

45) 본 표는 常玉芝(1987)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표의 祖己는 武丁의 太子였던 孝己를 가리키며, 祖庚은 出組의 첫 번째 왕으로, 祖甲의 형을 가리킨다.

필자는 앞에서 祖甲에 대한 제사가 祖乙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논하였다. 祖甲을 陽甲으로 보고 祖乙을 小乙로 볼 때, [표1]에서도 陽甲에게 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그 다음 旬에 小乙에게 제사가 거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周祭의 거행 순서로 볼 때도 祖甲을 陽甲으로, 祖乙을 小乙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앞 절에서 祖丁이 祖乙보다 선대의 인물임을 지적하였는데, 《花東》에서 祖丁에게 彡제를 거행한 후 祖乙에게 제사를 드린 간격이 위의 祖丁과 小乙 사이의 간격과 일치한다. 즉 첫 번째 旬에 上甲으로부터 제사가 시작된다고 가정할 경우 祖丁에게는 7번째 旬에, 小乙에게는 9번째 旬에 제사가 진행되는데, 이 주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小乙의 아내가 妣庚으로 불린다는 점도 《花東》의 상황과 동일하다. 따라서 彡제가 드러진 순서로 볼 때 祖丁은 陽甲과 小乙의 아버지인 祖丁을 가리키며, 妣庚은 小乙의 아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표 2] 《花東》에서의 彡제⁴⁶⁾

7旬		9旬		9旬
丁巳		乙亥		庚辰
祖丁彡	→	祖乙彡	→	妣庚彡

췌제의 경우, 초기의 왕인 大乙과 大甲의 이름이 보일 뿐만 아니라 祖乙과 妣庚의 이름도 보이고 있는데, 각 제사가 거행된 날을 모두 모으면 다음과 같다.

- (54) 甲午卜: 其禦宜臯, 乙未臯, 彡大乙. 用. 一 《花東》 290
- (55) 甲辰: 宜丁牝一, 丁格, 臯于我, 彡(日)于大甲. 用. 一二
- 己酉卜: 彡日庚, 子呼多臣臯見(獻)丁. 用. 不率. 《花東》 34
- (56) 乙巳: 歲妣庚彡, 彡祖乙. 一二三 《花東》 274
- (57) 己酉夕: 彡日彡妣庚黑牡一. 一二三四五

46) 甲戌일 밤(夕)부터 시작된 祖乙에 대한 彡제는 乙亥일의 제사가 전날 밤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표2]에서 乙亥일만 제시하고 甲戌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甲辰일의 밤(夕)부터 祖乙에게 지낸 췌제와 己酉일 밤(夕)부터 시작된 妣庚에 대한 췌제도 [표3]에서 각각 乙巳일과 庚戌일만을 제시하고, 甲辰일과 己酉일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甲寅卜：丁侃于子學商. 用. 一

《花東》150

卜辭의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각각의 기록이 서로 연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花東》에서의 翌제

2旬		3旬		9旬		9旬
乙未 大乙翌	→	甲辰 大甲翌	→	乙巳 祖乙翌	→	庚戌 妣庚翌

첫 번째 旬에 上甲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할 때 大乙과 大甲, 祖乙에게 드려지는 간격은 [표3]과 같고 妣庚은 祖乙과 같은 旬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이는 [표1]의 出組에서 각각의 조상들 大乙, 大甲, 小乙, 妣庚에게 진행되는 제사 간격과 일치한다. 《花東》의 卜辭에는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각도로 점을 친 기록이 자주 보이고 있고, 각기 다른 날에 기록된 卜辭들도 서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쳐진 기록이 아니라 단기간에 진행된 기록인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武丁과 婦好의 방문에 관한 기록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55)의 己酉일과 (57)의 甲寅일의 기록도 이런 예 중 하나이다. 또한 翌제와 관련된 12片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예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 제시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다른 조상에 대한 제사나 다른 날에 행해진 제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위의 조상들에게만 翌제가 거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卜辭의 기록 자체가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단기간의 기록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에 제시된 翌제의 기록들이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이 추론이 성립된다면 翌제의 기록은 앞의 彣제의 기록과 함께 《花東》의 周祭가 진행되는 간격을 확인시켜 주는 매우 귀중한 증거라 할 것이다. 또한 《花東》의 조상명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 명확하게 알려 주는 근거로서도 가치를 갖는다.

위와 같이 翌과 彣의 제사 간격을 통해 《花東》의 조상들이 王卜辭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장애가 되는 기록이 있다. 바로 祭제가 진

행된 기록이다. 《花東》의 祭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상에게 드려진 제사 기록보다는 주로 ‘西祭’나 ‘畝祭’의 형태로 출현하며, 단독으로 제사명으로 쓰이면서 각 조상의 이름이 함께 보이는 예로는 다음의 기록뿐이다.

- (58) 甲辰卜：又(早)祭祖甲，惠子祝。一
 甲辰：又(早)祭祖甲友癸。一
 甲辰：又(早)祭祖甲友癸。二
 乙巳：又(早)祭祖乙友癸。一
 庚戌：又(早)祭妣庚友白豨。一

《花東》 267

[표1]의 순서에 의하면 祖甲은 陽甲을 가리키고, 祖乙은 小乙을 가리키므로 祖甲에게 제사가 거행된 다음 旬에 祖乙과 妣庚에게 제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58)의 경우 같은 旬인 甲辰과 乙巳, 庚戌일에 각각 해당 조상에게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 周祭의 순서와 모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이 시기에는 祭가 아직 周祭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武丁시기의 賓組卜辭에서는 周祭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出組에 이르러서야 周祭의 형태가 갖추어졌다는 점을 볼 때, 《花東》은 賓組와 出組의 중간인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周祭의 종류나 체계가 出組만큼은 갖춰지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出組와 黃組의 周祭인 畝과 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여기에 出組와 黃組에서 畝제와 畝제는 각각의 조상들에게 독립적으로 거행된 반면 祭와 畝, 畝은 서로 교차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조합을 이뤄 진행되었다는 점도, 《花東》시기에는 祭가 周祭로서 거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즉 《花東》에서는 畝과 畝만이 周祭로서 조상의 재위 순서에 따라 제사가 진행되었고, 祭는 周祭가 아닌 일반 제사로 조상의 天干일에 거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祭의 제사 순서가 畝과 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47) 常玉芝(1986:191-193)에 따르면, 出組의 周祭는 上甲에서부터 武丁, 祖庚에 이르기까지 다섯 종류의 제사가 모두 완료되는 데 35旬(350일)이 소요되며, 여기에 1旬의 휴식기가 있는 후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따라서 周祭가 한 번 거행되고 새롭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36旬(360일)이 걸림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력의 1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周祭로 거행되는 제사와 조상명이 날짜의 역할 또한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子와 武丁은 어떤 관계일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武丁의 父인 小乙이 子에게는 祖父가 되고 있어, 子는 武丁의 아들 항렬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花東》에서 祖乙과 妣庚에 대한 제사가 다른 조상에 비해 훨씬 자주 거행되고 제물 또한 풍성하다는 점을 볼 때, 祖乙은 子의 직계 조상, 즉 친할아버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武丁의 아버지가 子의 친할아버지라면 子는 武丁의 아들인 것일까? 앞에서 ‘武丁의 아들’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한 바와 같이, 子를 武丁의 아들로 볼 수는 없다. 만일 武丁이 아버지라면, 아들인 子가 大乙, 大甲과 같은 선조는 물론 할아버지 小乙에게 직접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된 占卜기관과 경제권을 쥐고 여러 관료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도 子의 族長으로서의 지위를 설명해 준다.⁴⁸⁾ 따라서 子는 小乙의 손자로, 武丁의 형제의 아들, 즉 조카로 보는 것이 옳다.⁴⁹⁾ 때문에 王都에서 가까운 지역에 분봉을 받고 왕인 武丁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V. 結論

본 논문에서는 非王卜辭인 《花東》을 대상으로 조상신에게 주기적으로 거행되었던 기록인 周祭卜辭를 분석하는 한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花東》의 주인인 子와 당시 왕인 武丁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花東》의 제사 기록에는 王卜辭에 보이는 다섯 가지 周祭 중 翌, 祭, 丕의 세 가지 제사명이 보이나, 이 중 翌과 丕만이 周祭로서 거행되었으며, 祭는 일

이로 볼 때 出組의 周祭는 이미 의도를 가지고 시간에 맞게 짜여진 체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48) 《花東》에서 父에게 드리는 제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子의 아버지는 당시에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族長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子가 族長으로서 제사를 드림은 물론 정치, 경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9) 이쉽게도 문헌에는 小乙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武丁에 대한 기록만이 보이고, 武丁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 제사로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 조상들에게 거행된 제사의 간격을 비교 분석하여 이 시기에 이미 조상의 재위 순서에 따라 周祭가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花東》의 周祭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며, 기록에 있어서도 出組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친족 호칭인 祖가 사용된 조상명이 어느 조상을 지칭하는지 밝히고, 子의 신분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祖丁은 王卜辭의 祖丁을 가리키며, 祖甲, 祖庚, 祖辛, 祖乙은 각각 祖丁의 아들들인 陽甲, 般庚, 小辛, 小乙을, 妣庚은 小乙의 왕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花東》의 子는 小乙의 친 손자이며 武丁의 조카로, 族長의 지위를 지닌 인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非王卜辭이면서도 王卜辭와 유사성을 갖는 《花東》의 자료를 통해 周祭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子와 武丁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花東》 周祭의 전체 틀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出組 이전의 周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 子의 신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과 심화된 연구를 통해 초기의 周祭와 《花東》 子의 신분에 대해 보다 명쾌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參考文獻】

- 于省吾(1970),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1982), 《甲骨文合集》(全十三冊), 北京,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2003), 《殷墟花園莊東地甲骨》(全六冊),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 朱鳳瀚(2004), 〈讀安陽殷墟花園莊東出土的非王卜辭〉: 《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沈建華(2007), 〈從花園莊東地卜辭看“子”的身份〉: 《中國歷史文物》2007年第1期.
- 姚 萱(2006),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北京, 線裝書局.
- 島邦男(2006), 《殷墟卜辭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常玉芝(1987),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常玉芝(2010),《商代宗教祭祀》,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常耀華(2006),《殷墟甲骨非王卜辭研究》,北京,線裝書局。
- 曹定雲(2009),〈三論殷墟花東H3卜辭中占卜主體“子”〉:《殷都學刊》2009年 第1期。
- 許進雄(1968),《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台北,精華印書館,民57。
- 許進雄(1970),〈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的新觀念〉:《中國文字》第35期,民59。
- 許進雄(1992),〈第五期五種祭祀祀譜的復原—兼談晚商的歷法〉:《古文字研究》第18輯,北京,中華書局。
- 陳 劍(2007),《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線裝書局。
- 彭裕商(1986),〈非王卜辭研究〉:《古文字研究》第13輯,北京,中華書局。
- 黃天樹(2006),《黃天樹古文字論集》,北京,學苑出版社。
- 楊陞南(2004),〈殷墟花東H3卜辭“子”的主人是武丁太子孝己〉:《2004年安陽殷商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董作賓(1933),《甲骨斷代研究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五十),民22。
- 董作賓(1945),《殷曆譜》(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民34。
- 劉 源(2004),《商代祭祖禮研究》,北京,商務印書館。
- 裘錫圭(1998),〈論殷墟卜辭“多毓”之“毓”〉:《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劉一曼·曹定雲(1999),〈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選釋與初步研究〉:《考古學報》1999年第3期。
- 蔣玉斌(2006),《殷墟子卜辭的整理與研究》,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博士學位論文。
- 韓江蘇(2008),〈殷墟H3卜辭主人“子”為太子再論證〉:《古代文明》第2卷第1期。
- 魏慈德(2006),《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研究》,台北,台灣古籍出版有限公司。

【中文提要】

本文以王卜辭所見的周祭卜辭的內容為依據,分析出《殷墟花園莊東地甲骨》(以下簡稱《花東》)的周祭卜辭,辨明其內容與特徵,並對《花東》子的身份提出了個人的看法。本文所得出的成果,如下:

第一、《花東》周祭的類型:本文指出,《花東》祭祀卜辭中亦有王卜辭所見的“翌”、“祭”及“𠄎”之三種祀典,其中“翌”和“𠄎”已作為周祭而用,“祭”則似乎尚未列入周祭系統中。

第二、《花東》周祭的致祭順序：本文通過“翌”和“彡”二種周祭卜辭的分析，考察了《花東》時期已有按先王的世序輪流致祭的規律。

第三、《花東》周祭的性質：《花東》周祭卜辭正處於殷墟卜辭第一期和第二期中間的過度時段，故周祭系統尚未完備。在卜辭的記錄方面也未見固定形式。

第四、《花東》祖先名及子的身份：本文基於《花東》周祭卜辭的分析而探討，《花東》“祖丁”、“祖甲”、“祖乙”和“妣庚”的祖先名各指王卜辭中的“祖丁”、“陽甲”、“小乙”以及“小乙”的配偶“妣庚”。另有“祖庚”和“祖辛”的祖先名也各指“般庚”和“小辛”，均是武丁的父輩。至於子的身份，本文提出：子不僅是族長，而且既為“小乙”的親生孫子，又是時王“武丁”的侄子。

【主題語】

殷墟花園莊東地甲骨，花東，甲骨文，卜辭，周祭，五祀統，五種祭祀
YinXuHuaYuanZhuangDongDiJiaGu, HuaDong, Oracle bone inscriptions,
ZhouJi(Routine ritual for the ancestors), WuSiTong, WuZhongJiSi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